

전남도 내년 유망 중소기업 9100억 지원

올보다 1120억 늘어 ... 대출금리도 지속 인하

신용보증 자금 5000억으로 ... 펀드 투자 확대

전남도가 유망 중소기업, 전남형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017년 9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12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는 20일 “내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시설자금 700억원, 운영자금 3100억원, 펀드투자 300억원, 신용보증 공급 5000억원 등 9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먼저 전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대폭 확대한

다. 올해 에너지 관련 기업 177개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농식품 업종 기업 등 279개 기업이 에너지밸리나 지식산업단지 에 자리를 잡은 상태다. 전남도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대출자금 회수 등으로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한다. 올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0%였던 시설자금 대출금리

를 올해 2.57%까지 낮췄으며, 내년에는 이를 2%대 초반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자금에 대해 2.5~3.0% 이자도 지원한다. 이자 지원 규모는 올해 80억원에서 2017년 114억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 대책도 수립했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4500억원에서 2017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한도는 신보, 기보 보증 포함 최대 8억원까지, 보증수수료는 0.5~2.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직접 투자도 확대

된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청년기업에 50억원 규모의 ‘전남 엔젤 펀드’, 130억원 규모의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120억원 규모의 ‘청년기업 펀드’를 통해 직접 투자 지원한다. 청년기업 펀드는 2017년 새로 조성하는 것이다.

임태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제 교육,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수출, 판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나주에 들어선다

194억 들여 동신대에 건립

한의학학을 통한 전남 생명의학 분야 허브 기능을 할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가 나주에 들어선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일 나주 소재 동신대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이해정 원장, 강인규 나주시장, 김필식 동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전남센터는 6110㎡ 면적에 19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8년 4월 완공 예정이다.

한약표준표본관, 식물배양실, 세포배양실, 유전자분석실, 약재보관실 등의 연

구동을 비롯 동물실, 기속사 등을 갖추게 된다.

전남에 이미 구축된 생물산업 기반과 연계해 한의약 자원 발굴, 보급, 재배기술 지원 등을 할 전망이다. 또 광기술을 활용한 한방 의료기기 융합기술 개발, 한의약 자원 생산·가공기술 현대화 등 전남 생물의학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의 생물산업 기반시설로는 화산 생물약학연구원, 나주 식품산업연구원, 장흥 천연자원연구원,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 장흥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등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내 5개 장애인 기관 ‘최우수’ 선정

복지부 전국 300곳 평가

전남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 광양지체장애인협회, 순천척수장애인협회,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기관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남지역 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평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비스 내용, 운영 실태 등 사업 운영 전반을 평가한 결과 전남지역 16개소 모두 ‘보통’ 이상을, 절반 이상인 9개소가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최우수기관을 배출했다. 우수등급 기관 가운데 상위 10%만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다. 최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인증 현판을 수여받고, 기관당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바우처사업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 대상자에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장애인 바우처사업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바우처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온 부정수급 예방대책 등 장애인 복지사업 발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니스 악몽’ 재연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트럭이 독일 베를린의 한 상가를 덮쳐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독일 경찰이 밝혔다. 당국은 지난 7월 프랑스 니스에서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테러’와 같은 테러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서 대형트럭 마켓 돌진 12명 사망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 권총 맞고 숨져

성탄·연말 앞두고 세계 곳곳 테러 ‘열풍’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대형 테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성탄절을 앞둔 19일(현지시간) 쇼핑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 크리스마스마켓을 덮쳐 최소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또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전시회에서 터키

경찰관이 손 총에 맞아 숨졌다.

베를린 사건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고한 민간인의 일상을 겨냥한 ‘소프트타겟’ 테러 가능성이 있다. 범행 트럭 운전자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라는 현지 언론보도도 나와 독일 및 유럽 난민 문제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함께 안드레이 카를로프(62) 러시아 대사는 19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개막식에서 축사하던 중 현장에 잠입한 검은색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뒤에서 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카를로프 대사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저격범은 메블뤼트 메르트 알트타시(22)라는 이름의 터키 경찰관이다. 알트타시는 총격 후 왼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킨 채 고성으로 항동안

연설을 했다. 그는 “알레포를 잊지 말라”, “시리아와 알레포를 압제한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신은 위대하다” 등을 외쳤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알트타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터키 관영 아나톨루통신이 보도했다. 숭진 카를로프 대사는 40년을 외교계에서 일한 정통 외무관료로 한반도와도 인연이 있다. 한국어에 능해 2000년대 초·중반 북한 주재 대사를 지냈다.

이번 저격사건은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에서 4년 반 만에 승리를 거두고 수니파 반군 철수가 진행되는 중에 발생했다. 러시아 대사가 터키경찰관의 ‘보복성’ 테러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 저격 사건이 양국 관계와 시리아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공식 확정

선거인단 투표서 과반수 득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 지었다.

미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은 이날 출신 주의 주도(州都)와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 모여 투표를 시행했다. 집계 결과 트럼프 당선인은 304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227표를 각각 얻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270명) 고지를 넘어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됐다.

공식 확정 발표는 내년 1월 6일 열리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달 20일 제45대 미

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내 “압도적인 투표로 나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 232명에 그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다.

투표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앞에 200여 명이 모인 것을 비롯, ‘반(反)트럼프’ 시위가 잇따랐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 지지자들이 기대한 ‘배신 투표’의 이변은 없었다.

대선 전체 득표수에서 클린턴이 300만 표가량 앞서는데다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에 등을 돌리는 ‘반란표’ 출현 가능성이 주목됐다.

연합뉴스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징

- 광주·전남 산업체 근무자 및 관련 공공기관 재직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4학기) 동안 협약기관특별장학금(수업료의 1/2)과 각종 학술장려금 지원
- 전일제 연구생은 수업료의 2/3 지원
- FTA 및 무역전문가 팀티칭 수업 실시,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현장실습 기회 부여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구분	일정	비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 fta_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월)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